

[보도자료] 쿠팡, 악천후로 판로 막힌 전국 농가 수백곳 돕는다 1주간 과일 250톤 매입

2023. 10. 26.



김동수 디에스푸즈 대표



임성민 디에스푸즈 총괄매니저

- 사과·배·포도·단감 전국 수백곳 과일농가 대상
- 냉해·우박 등 기상이변, 명절 이후 수요급감 위기 극복
- 폐기 위기 농산물 '로켓프레시'로 전국 판로 확대

2023. 10. 26. - 쿠팡이 악천후 피해를 입은 사과·배·포도·단감 등 제철 과일을 1주일간 250톤을 매입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농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올 들어 연말에 발생한 냉해, 우박 같은 악천후로 인한 피해 누적, 추석 이후 수요 급감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과일을 대거 사들여 지역 농가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쿠팡은 지난 16일~22일까지 약 일주일 간 악천후 피해 등으로 버려질 위기에 처한 과일 250톤을 매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지역 곳곳의 사과와 포도 등 쿠팡에 과일을 납품하는 전국 농가 수백곳에서 매입물량을 늘렸다. 특히 올 6월부터 냉해와 폭염, 폭우 등으로 피해가 가중된 농가들이 대상이다. 올 들어 전국 17개 지역이 농작물 냉해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기후 이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입은 전국 농가들은 쿠팡의 이번 대규모 과일 매입으로 재고해소 부진을 딛고 판로를 확대하는 등 숨통을 돌렸다고 입을 모았다.

경북 영주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청년 농부 김동수(34) 디에스푸즈 대표는 “지난 4월 냉해와 6월 우박, 7~8월 집중호우 등 영주 인근 농가는 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저히 손쓸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쿠팡과 협업으로 극복했다”며 “오프라인 판로를 뚫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이 안정화됐다”고 했다.



송을빈 원농산 대표

충남 천안 원농산 송을빈 대표(70)도 “올해 변동이 극심한 기후 상황 속에서 농사가 만만치 않았고 특히 과일 가운데 배 농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명절 이후 소비가 주는 소강기에 쿠팡을 만나 오히려 판매에 활기에 띄었다”고 전했다.

쿠팡이 매입한 과일은 ‘산지 직송’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선한 상태로 빠르게 배송된다. 상품별 최적의 온도를 갖춘 신선식품 전용 물류센터를 거쳐 주문 다음날 아침 ‘로켓프레시’로 받을 수 있다. 송 대표는 “쿠팡의 체계적인 배송 시스템으로 직접 재배한 과일을 더욱 신선하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쿠팡이 이처럼 대규모 과일 매입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쿠팡은 지난해 추석 짧은 명절로 판매 시기를 놓친 사과 100톤에 이어 올 설 명절에도 과일 200톤을 매입했다. 지난 4월엔 방울토마토 전량폐기 이슈가 발생한 토마토 400톤을 전국 농가에서 매입해 거래처 납품 중단 위기에 처한 농가를 도왔다.

지난 9월에도 우박 피해를 입은 사과 농가 대상으로 60톤 규모의 ‘우박 사과’를 매입해 고객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쿠팡 관계자는 “계속된 재해로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 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대량 매입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미래를 이끌 청년 농가를 포함해 어려움을 겪는 전국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